한국 화학산업과 전문지의 역할

「화학저널」이 어느새 창간 1주년을 맞았다.
1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아주 짧은 영겁속의 찰나에 불과할진데, 새로운 감회를 느끼는 듯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화학저널」은 그동안 한국 화학산업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려 하는가.
참으로 얼굴 들기 민망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년 365일 동안, 무지함을 앞세워 응석부리고 어리광을 피웠던게 얼마나 많았던가.
그동안 안아주고 다독거려준 모든 분들께 「화학저널」 임직원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그러나 어린 새싹이 언제까지나 응석받이로 남아 있을 수 없듯이, 「화학저널」 또한 첫돐에 만족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무릇, 「전문지」라 함은 관련산업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동반자로서 인식되고, 같이 성장하는 언론이라고들 한다.
보통은 보기 싫은 것을 보고서도 못본 채, 듣기 싫은 것을 들었을 때도 못들은 채, 하고 싶은 말이나 주장이 있어도 관련산업이나 특정기업이 싫어하면 모른 채 참으면서 지나치라는 것으로, 한국 산업계에는 이같은 편향된 속성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참 언론은 보기 싫은 것, 듣기 싫은 것, 쓰기 싫은 것을 가리지 않음에 있다고 믿는다.
「쓴 약이 병을 고친다」는 속담을 예로 들 것까지도 없이, 언론은 나름대로 그 역할이 있게 마련이고, 바른 길이라면 주의 · 주장을 굽힘없이 펴야 하는 것이다.
「미운 놈에게는 떡 한입」, 「사랑하는 녀석에게는 회초리」를 들라던 옛 선인들의 가르침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좋은 게 좋다」는 무소신과 무의식과 이기주의로는 참 언론을 구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화학저널」은 1년이라는 짧은 시간속에서, 조금은 유별나게—사실은 유별난 게 아니지만—소신을 말하고 충고하면서 채찍질했왔다.
이로인해 여러 기업이나 화학인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신과 충고와 채찍질이 당장은 아프고 쓰릴지라도, 진정 화학산업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용기로써 받아들이고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일부의 편향된 시각이나, 일반적 「사이비」와는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다.
「화학저널」은, 창간에 즈음하여 밝혔듯이, 한국 화학산업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일반 경제지나 전문지에서 시도하기 어렵고 힘든—특화된 수급 · 가격 · 투자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뜻은 좋을지라도 경험미숙에서 오는 오류가 있었음은 시인한다.
우리는 「전문지」와 「화학산업」의 관계를 재정립,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에서 정도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실천할 각오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화학저널」은 한국 화학산업 및 학계에 없어서는 안될 전문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즉 화학산업계가 「화학저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협조를 모색할 수 있도록 내용에 충실할 것을 약속한다.
둘째, 「화학저널」은 옳지 않은 것은 그르다고 말하고, 옳은 것은 권장 · 유도하도록 지도 · 계몽하는 역할에 충실, 한손에는 정보, 한손에는 회초리를 들 것임을 밝혀둔다.
회초리의 끝이 날카롭다고 외면하지 않고, 잘못된 점은 뼈아프게 성찰하는 좀 더 성숙함을 바라고 싶다.
세째, 화학산업 발전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화학저널」을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에 충실을 기함은 물론 신속 · 정확한 정보를 선택, 도움을 받고, 그것에 온 마음을 표현해 주는 여유를 권하고

싶다.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은 나라를 옳게 이끌지 못하듯이, 「화학저널」을 읽지 않는 화학업계 종사자는 화학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신념하에, 부족한 경험과 실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공부하는 자세로 노력할 것이다.

화학산업계에 진정한 전문지가 존재할 때,
화학산업도 튼튼한 기초위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신뢰하면서….

<화학저널 1992/5/15>